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통합의료원보 VOL. 89

2025
05
06

순천향대 천안병원 새병원 개원
“한국의 메이요클리닉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을 향하여”



ipiciatis unde omnis iste
sit voluptatem
doloremque laudantium,
peria+eaque ipsa quae
tore veritatis et quasi architecto
dicta sunt explicabo.

tdio.h>

1, number2, sum;

r two integers: ");
t", &number1, &number

g sum
ber1 + number2;

+ %d = %d", number1,
um);

+

++
ber1 + number2;

+

+ %d = %d", number1,
um);

+

include <stdio.h>;
int main() {
int number1, number2, sum;

printf("Enter two integers: ");
scanf("%d %d", &number1, &number2);

// calculating sum
sum = number1 + number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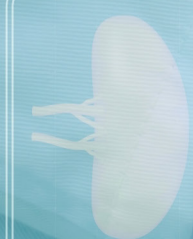
printf("Sum: %d", sum);
return 0;

Editor_백승주

ipiciatis unde omnis iste
sit voluptatem
doloremque laudantium,
peria+eaque ipsa quae
tore veritatis et quasi architecto
dicta sunt explicabo.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sed diam
nonummy nibh euismod tincidunt ut laoreet dolore magna

Editor_백승주



"Sed ut perspiciatis unde omnis iste
natus error sit voluptatem
accusantium doloremque laudantium,
totam rem aperiam, eaque ipsa quae
ab illo inventore veritatis et quasi architecto
beatae vitae dicta sunt explicabo.

Humane Entrepreneur

휴메인 앙트레프레너

AI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sed diam nonummy nibh
euismod tincidunt ut laoreet
dolore magna aliquam erat

서교일 동은학원 이사장은 순천향대학교 건학 40주년 인터뷰에서 설립자 서석조 박사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개혁정신, 진취성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천향의 개척 DNA'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적 '휴메인 앙트레프레너'(Humane Entrepreneur: 인간적 따스함을 갖춘 기업가) 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강조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설립자의 DNA는 면면히 흐르는 법이어서 흔히 닮아 간다고 합니다. 설립자 서석조 박사의 DNA가 서교일 이사장의 무언(無言)의 리더십으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천안에 새로운 순천향대학교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큰 병원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순천향의 설립 정신을 더 넓고 깊게 실천하기 위한,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의 공간입니다. 이제 순천향은 '매머드급'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시대 정신에 맞게 병원도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 정신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창업가 정신이 아니라,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도전정신입니다. 의료는 점점 복잡해지고, 환자들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진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천향이 환자의 요구에 먼저 변화하고, 먼저 상상하고,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병원도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해야 산다”

그 혁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사랑', 그리고 '사람을 향한 인간적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천향이 지켜온 본질을 잊지 않는 창의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번 천안 새병원은 바로 그 도전의 시작점입니다. 진정한 순천향 플랫폼이 되어 '지역 거점 병원'을 넘어, 세계로 뻗어 가는 글로벌 메디컬 허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순천향인 모두가 나 자신을 '앙트레프레너'로 자각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휴메인 앙트레프레너' 정신으로, 순천향은 세계 일류 병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순천향의 도전은 '사람'을 향하고, 순천향의 미래는 '사랑'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Sed ut perspiciatis unde omnis iste
natus error sit voluptatem
accusantium doloremque laudantium,
totam rem aperiam, eaque ipsa quae
ab illo inventore veritatis et quasi architecto
beatae vitae dicta sunt explicabo.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2025. 05+06 VOL. 89

발행일 2025년 5월 16일

통권 89호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배지연, 이상원, 안지영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31길 31

연락처 02-710-3166 www.schmc.ac.kr

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표지설명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새병원이 지난 5월 7일 개원했습니다. 이제 순천향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섰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순천향의 설립 정신을 더 넓고 깊게 실천하기 위한,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의 공간인 새 건물 전경을 표지에 담았습니다.

06

순천향 아카이브

가정의 달 이해인 수녀 특별기고

08

SPECIAL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새병원 개원



14

FOCUS 1

꿈의 암치료, '카티(CAR-T) 세포치료' 첫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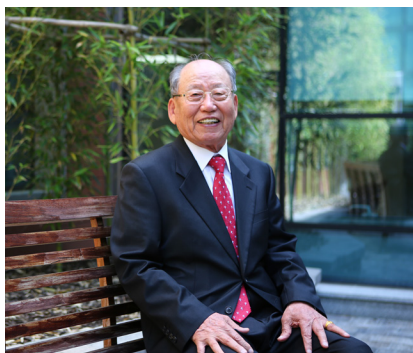


16

LOVE

사랑과 헌신으로 싹튼

진심이 담긴 마음의 시(時)



18

HISTORY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 『서석조 평전』 연재 ❸

- 서석조, 해방 직후 일본서 돌아와

서울대학교 내과의사로 첫발



20

DOCTOR

“ 좋은 결과로 환자를 웃게 하는 것이

훌륭한 의사죠”

-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



24

VISIT

여성암 맞춤 치료, 이것이 정석이다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여성암센터



28

WITH

아름다운 나눔, 사랑으로 디자인하다

-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디자인경영

류선주 교수&김도현 학생

30

ISSUE

'리쥬' 도입으로 전립선비대증 맞춤치료 확대

32

ISSUE

카자흐스탄 환자,

한국서 신장암 로봇수술 성공 화제

34

ISSUE

- 혈액검사 자동화 시스템 확대 운영

- 전립선암 뼈 전이 진단법

새로운 기준 제시

36

ISSUE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QI 페스티벌,

구미병원서 개최



38

KNOWLEDGE

때같이 검어진 피부,

흑색가시세포증 의심해 봐야

40

KNOWLEDGE

진행성 난소암, 이중 면역항암제 병합 치료로

생존율 획기적 향상

42

KNOWLEDGE

뇌혈관질환 치료 혁신, '하이브리드 수술실'

44

KNOWLEDGE

조절 가능한 치매 위험인자 14가지

46

EQUIPMENT

천안병원 방사선 암치료기

48

NEWS



“가족들에게 꽃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의 계절을 맞아 이해인 수녀님께서 지난 2012년 『순천향』 제11호를 통해 순천향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과 따스한 기도로 가득한 특별한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수녀님의 글에는 가족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따라 잠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5월의 햇살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글_ 이해인 수녀

존재 자체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분.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밤낮으로 일터에 서 노심초사하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께 오늘은 노란 해바라기 꽃을 드립니다.

남몰래 고민하며 한숨 쉬던 삶의 무게도 잠시 내려놓고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보श्य. 둥근 마음으로 하늘을 보श्य. 아버지는 우리가 바라보는 자상의 멋진 해님입니다. 많은 말보다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 사랑을 이야기 하는 아버지의 그 숨은 노고를 사랑합니다.

존재 자체로 우리의 고향이 되어주는 분. 가족들을 보살피느라 밤낮을 깨어 사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께 늘은 고운 장미 한다발 바칩니다. 아픈 가시조차 향기 속에 숨기는 장미는 곧 어머니의 꽃입니다. 항상 자신보다는 가족들을 먼저 챙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바라보는 지상의 천사이며 달님입니다. 잠시라도 안 보이면 금방 시무룩해지는 우리의 ‘영원한 우상’이며 ‘애인’인 어머니를 5월의 신록처럼 싱그럽고 푸르른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름만 불러도 금방 평화가 느껴지고 위안이 되는 이 땅의 언니와 누나들에게 오늘은 분홍 안개꽃 한 다발 드립니다.

조롱조롱 이야기가 많고 아기 자기 정겨운 그대들, 동생들을 사랑하며 엄마 아빠 대신해서 살림도 살줄 알고 부모님 대신 잔소리도 곧잘 하는 한 가정의 비서이며 심부름꾼들인 언니와 누나들 있어 우리의 삶이 한결 부드럽고 풍요로움을 감사합니다.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 무슨 일이라도 해결해 줄 것 같아 의지가 되는 이 땅의 오빠와 형들에게 오늘은 하얀 백합 한 다발 드립니다. 백합처럼 순결하고 정의로운 나팔을 곳곳에 붙여주세요. 어려운 일 생기면 부모 보다 앞서 걱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성실한 오빠와 형들이 있어 우리의 삶이 한결 따뜻하고 너그러워 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철없이 어리광 부리고 대로는 말썽도 피우지만 모든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땅의 모든 어린동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오늘은 진분홍빛 패랭이꽃 한 다발 전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존재 자체로 드러내며 사랑을 많이 받아 사랑도 할 줄 아는 사랑스런 그대들 있어 우리의 삶이 더욱 재미있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고마워합니다.

아들딸을 위하고 손자 손녀들을 끔찍이 아끼시는 이 땅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오늘은 보랏빛 등꽃을 드립니다. 길게 늘어지는 검은한 등꽃타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날마다 기도의 꽃등을 밝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푸근한 정이 있어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고 쉬어갈 수 있음을 새롭게 감사합니다. 조카들을 챙기고 위해주는 이 땅의 이모, 고모, 숙모, 삼촌들에게 오늘은 향기가 아름다운 라일락을 드립니다. 우리의 엄마 아빠들과 얼굴도 비슷하고 성격도 많이 닮아 서로 자주 못 만나고 멀리 있어도 늘 정답게 느껴지는 분들. 먼데까지 향기를 전하는 라일락처럼 고운 정 날려주며 집안의 대소사에 함께 하는 이모 고모 숙모 삼촌들 있어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음을 고마워합니다.

일 년 사계절을 사랑하지만 꽃과 나무들이 아름다운 5월에는 우리의 가족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세요! 가족이 곁에 있어 행복한 우리들, 가족 없는 사람들에게겐 사랑으로 다가가는 좋은 벗이 되고 혈연을 넘어서도 가족이 될 사랑의 공리를 해보세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에 바치는 기도

- 이해인(수녀, 시인)

우리 집이라는 말에선	헤어지고 싶다가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온다	헤어지고나면
‘우리집에 놀러 오세요’라는 말은	금방 보고 싶은 사람들
음악처럼 즐겁다	주고받은 상처를
멀리 밖에 나와	서로 다시 위로하며
우리집을 바라보면	그래, 그래 고개 끄덕이다
잠시 낯설다가	따뜻한 눈길로
오래 그리운 마음	하나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한 웃음과 눈물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못마땅해서	언제라도 문을 열어 반기는
언성을 높이면	우리집 우리집
부끄러운 순간까지 그리워	우리집이라는 말에선
눈물 글썽이는 마음	늘 장작타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집은	고마움 가득한
고향이 되나 보다	-이해인의 동시 ‘우리 집’ 전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새병원 개원

“한국의 메이요 클리닉, 대한민국 대표의료기관을 향하여”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새병원이 5월 7일 개원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새병원은 현병원과 인접한 곳에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로 지어졌다. 부지 45,300.10㎡(13,700평), 건축면적 136,192㎡(41,200평)에 1천병상 규모로 지어진 새병원은 주차용적 1,039대, 옥상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넓직한 헬리패드도 갖췄다. 최첨단 장비와 환자 친화적인 진료시스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갖춘 새병원은 지역의 의료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권역민의 신뢰에 보답할 것이다.



천안병원 새병원 역사 History of the New Hospital



08.29 천안병원 장기발전 방안 - 도시계획 변화 및 발전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장기계획 수립



04.19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새병원 건립 입안제안 수용 통보



03.19 새병원 건립 건축설계 지침서 작성 완료

07.21 순천향대학교 부속 새병원 건축설계용역 계약 체결 - (주)삼우건축사사무소

12.30 건축허가 완료



05.07 개원



12.27 천안시-(학)동은학원 업무협약(MOU) 체결





첨단의료로 혁신을 이끄는 순천향

새병원은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 장비를 활용해 대한민국 첨단의료의 혁신을 이끌어 간다. 수준 높은 의술에 첨단기술이 더해져 환자들의 아픔을 돌본다. 정확한 진단, 세심한 치료로 가장 정밀한 환경에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사선암치료기 추가 도입 및 하이브리드수술실 운영

새병원은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최고 수준의 치료역량을 갖췄다. 대표적으로 방사선 암치료기 2대를 추가 도입

했다. 도입한 치료기는 미국 배리안(Varian)사의 ‘트루빔’과 ‘헬시온’이다. 현존하는 X선 선형가속기 중 최고 사양을 갖춘 트루빔은 최신 영상-추적 장치(이그잭트랙_Exactrac)가 장착돼 방사선 뇌수술 분야에도 활용된다. 헬시온은 표면유도방사선치료(SGRT)가 함께 설치돼 환자 몸에 마킹(표식) 없이 치료가 가능해 여성암(유방암, 부인암) 치료기로 운영된다. 내·외과적 시술과 수술이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도 운영한다. 한 장소에서 진단과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이 윈스톱으로 가능해 안전사고 예방과 시급

을 다루는 응급환자 치료에 효과적이다. 병원은 하이브리드 수술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남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신경외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신경과, 마취과, 외과 등 여러 진료과의 통합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량의 검체 처리모듈 ‘UCM2’ 국내최초 도입

진단·검사 분야에도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도입했다. 노후된 의료장비는 과감하게 폐기하고 최신식의 새 장비를 도입해 최상의 역량을 갖췄다. ▲영상

검사장비 MRI는 3대에서 4대(신규 2대), CT는 3대에서 5대(신규 2대) ▲핵의학 검사장비는 4대에서 5대(신규 2대)를 가동한다. 특히 새병원은 혈액검사 자동화 시스템(CCM)을 확대·운영한다. 시스템은 검체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도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듈(UCM2)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채혈 이후부터 이동, 분류, 검사, 보관 및 폐기까지 자동화되는 시스템은 대량의 검체도 빠르고 오류 없이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어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새병원은 또 컨베이어벨트 자동화 시스템도 운영한다. 병동, 외래, 중앙공급실, 약제부 등 거의 대부분의 구역에 컨베이어벨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사람이 직접 운송하던 일은 기계가 자동으로 의약품, 의료소모품, 비품 등을 운송해 줌으로써 속도와 안정성 부분에서 효율적이다.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여는 순천향

새병원은 응급의료 최전선에서 환자들

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최상의 환경을 갖췄다. 옥상 헬리패드부터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응급실과 전용 입원실, 검사실, 수술실 등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직동선으로 설계되어 숙련된 의료진에 환경, 시설적인 완벽을 더했다. 국가지정 대한민국 1호 소아응급의료센터, 지역 최상의 충남권역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국가가 지정한 충남지역 유일의 심뇌혈관질환센터까지 생명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가장 절실한 순간에 희망을 선물할 것이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순천향

새병원은 국가가 지정한 중부권 유일의 감염병 전문병원 답게 지역의료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치료환경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교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 동선을 분리한 ‘Dual spine’ 개념을 적용했다. 환자와 의료진이 마주치는 빈도를 줄여 감염을 최소화한 것이다. 또

특수 설계된 음압병실과 음압수술실, 보다 철저한 방역시스템은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한다.

마음의 치유와 위안을 주는 순천향

새병원은 진료, 검사, 치료, 수술 등 거의 모든 기능이 하나의 건물에서 이뤄진다. 그로 인해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편의성은 주차시설이다. 새병원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총 1,039대의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나아가 기존병원에서 운영돼 온 주차시설도 일부 유지함으로써 지금까지 주차 불편을 겪던 이용객들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새병원은 또 입원환자들에게 넓고 쾌적한 병실을 제공한다. 하나의 병실에 최대 4인실까지지만으로 입원이 가능하게끔 배정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입원환자들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전문 간호인력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추가하고 기존 내과계에서만 운영되던



것을 외과, 산부인과 등 여러 진료과로 확대했다. 새병원이 개원하면 기존 6개 병동(315병상)에서 10개 병동(495병상)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병동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녹음이 짙은 휴게공간 옥상정원을 비롯해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공연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372석 규모의 오디토리움도 새롭게 마련됐다.

지역발전과 미래의료 선도하는 순천향

새병원이 개원하면 지근거리에 위치한 순천향대의대와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의 교육 및 연구역량이 더해져 ‘순천향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조

성된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는 순천향의 뛰어난 임상-기초의학-의생명연구기능이 뭉쳐진 3원 의학클러스터다. 새병원-의대-연구원이 중개연구 영역에서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국가 의생명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한다. 치료와 교육,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간. 새병원은 바이오 의생명산업의 메카로 새롭게 발돋움 한다.

한국의 메이오 클리닉 “New Standard”

새병원은 지방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표준이 될 것이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역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한편, 지역의 중심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새로운 의료문화를 선도할 것이다. 단 순히 새 장소에 새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닌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시스템, 서비스 등을 획기적으로 채우고, 지역민들이 더욱 신뢰하고 자부심을 느낄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지역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공간이 되고, 지역사회의 지속성장에도 큰 동력이 될 한국의 메이오 클리닉. 새병원은 첨단의료의 중심, 대한민국 의료의 품격을 완성할 것이다. 



꿈의 암치료, '카티(CAR-T) 세포치료' 첫 성공

순천향대서울병원, 매월 2~3명 환자에게 시행 중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이 최근 꿈의 암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치료를 시작했다. 첫 환자는 여러 치료에 불응성이었던 미만성대B세포림프종 환자다. 지난 2월 혈액을 채취해 스위스(미국 또는 스위스로 보냄)로 보낸 후 1개월 뒤에 CAR-T세포가 무사히 만들어져서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주입했다. 첫 환자 치료 이후 매월 2~3명의 환자에게 카티(CAR-T) 세포치료를 시행 중이다.

김경하 순천향대서울병원 중양혈액내과 교수는 “우리 병원은 19870년, 국내에서 세 번째로 조혈모세포이식을 시작했고, 지금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어서 치료과정이 비슷한 카티 치료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AR-T 세포치료, 난치성 혈액암에 새 희망 제시

카티(CAR-T : 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s) 세포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채취한 후 이 T세포에 암세포를 찾아내는 물질인 키메라 항원 수용체 ‘CAR’를 장착하는 유전자 변형을 한 후 다시 체내에 주입하는 치료 방법이다.

주입한 카티(CAR-T)세포는 환자 체내에서 암세포를 공격하고 장기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을 유지하기도 한다. 암세포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치료과정은 조혈모세포이식과 유사하지만, 국내에서 치료를 하려면 해당 병원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치료과정에 있어서도 기존 치료와는 다른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 및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카티(CAR-T)치료는 현재 일부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에서 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할 수 있으며 기존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서도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다. 



사랑과 헌신으로 싹튼 진심이 담긴 마음의 시(時)

국가유공자 환자,
구미병원 의료진에 감사의 시 헌정

우리나라에는 6.25와 분단을 겪으면서 수많은 보훈 환자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의 아픔은 여전히 다 씻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환자들이 상처의 고통을 호소하며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큰 감동을 준 구미병원 의료진에게 진심이 담긴 감동적인 시(時) 한 편이 전달됐다.

글_전진용 사진_최종경

김인환 환자는 내년이면 90세를 맞는다. 국가유공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살아온 삶이지만, 수십 년간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며 지내야 했다. 그는 젊은 시절 육군 제1사단 최전방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켰다. GOP 경계근무와 수색이 주 임무이기에 항상 위험은 뒤따랐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전방지역에는 많은 지뢰지대가 존재하고 이를 통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지뢰가 전쟁의 상처처럼 구석구석 숨어 있었다.

결국, 순찰 중 사고를 겪었다.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남겼다.

군 복무 시절 지뢰 사고로 하지 절단

“GOP 군무 시절, 지뢰 사고로 인해 하지 절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앞이 캄캄하고 큰 실의에 빠졌었지만,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이나 주변의 존경심은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었지만, 그에게 남긴 상처는 수십 년간 환자를 괴롭혀 왔다. 지금까지 상처 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달고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껏 통증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견뎌 왔지만, 때론 아무리 강한 진통제로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찾은 구미병원이 안식을 주다

구미병원은 보훈 위탁병원으로 그동안 환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다리뿐 아니라 성치 못한 몸 상태로 그동안 구미병원 정형외과, 외과, 비뇨기와 등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아왔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곳이 바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병원이 구미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들이 항상 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결심했습니다.”

김 환자의 옆을 지켜주던 그의 부인 역시 연로한 나이로 인해 몸이 성치 못했다. 특히 무릎관절과 심장 문제 등으로 인해 환자를 돌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신뢰하는 구미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선택하게 됐다. 연로한 부부가 서로를 감싸고 보살피며 지내왔던 것도 한계가 있었기에 보호자 없이 운영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선택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이 늙은이를 병원에서 잘 대해 줄까? 보호자가 없어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지만, 병원 입원 후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그리고 모든 의료진의 헌신과 사랑을 몸소 느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세심하게 치료해 주시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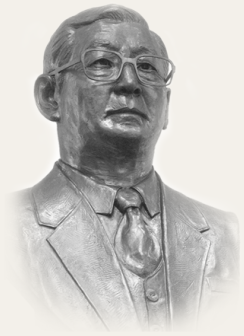
을 보면서,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거동이 어렵고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에게 보여 준 의료진의 진심 어린 돌봄은 어두웠던 마음에 푸르른 희망을 싹트게 했다.

구미병원 의료진 향한 감사의 헌정 시(時)

“엄청난 고통으로 눈조차 뜨기 두려웠던 제가, 이제는 아늑한 침대에 누워서 천사 같은 간호사님들의 간호를 받으며 희망을 싹틔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작은 선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1년 전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김 환자는 구미병원 의료진에 대한 감사함을 담은 시를 만들었다. 자신의 진심을 담은 감사의 헌정 시를 구미병원에 전달했다. 그리고 그 시는 ‘월간 국보 문학 동인 문집 제38호’에 당선됐다. “제가 의료진에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노고와 사랑, 헌신만은 제 진심을 다해 감사함을 전달하고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인환 환자의 창작 시>

입원실에서	
우리같은 통증이	홀연히 천국 같은 꿈속으로
인내심 깰뻔했다	눈을 뜨니 아늑한 병실
응급실 문 두드리네	마중 나온 침대
천사 같은 간호사 웃음소리	사랑이 머무는 곳
선원으로 대접했다	인내가 머무는 곳
되풀이 한 사랑에 용서를 빈다	희망이 싹트는 곳
침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사랑의 병원
사랑의 눈물이다	발견하는 순천향병원
한방울 한방울 내 가슴으로 적시는	
사랑의 빛물이다	하늘이 불러 뒤돌아보네
	무게구름이 손 흔드네
<월간 국보문학 동인문집 제 38호 당선 시>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을 연재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2021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항설서석조탄생100주년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서석조 평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서석조 박사의 활동이 지닌 의미를 역사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교일 이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진이 참여하여 국내외의 수집된 실증적 자료 검토와 인터뷰를 통한 자료를 정리 저술했다. 본지는 한국 현대 의학의 성장에 일생을 오롯이 바친 서석조 박사 삶의 완결편인 '서석조 평전'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 플랫폼'의 재발견 일환으로 연재한다.

서석조, 해방 직후 일본서 돌아와 서울대학교 내과의로사로 첫발

순천향 설립자 항설 서석조 박사 흉상



일본에서 우여곡절 끝에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서석조는 혼란스러운 한국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의 정치적인 혼란은 자연스레 의학 교육과 의료계 전반의 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사명감을 키워나갔다. 의사들은 의료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한편, 미국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의료 기술, 의약품, 의학 지식을 접하며 그에 대해 학습하였다. 서석조를 포함한 많은 의사들은 그 과정에서 미국 의학의 발달한 산물을 접하며 한국 의료의 발전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해방 이후의 복잡한 의료계의 변화들은 서석조를 선택의 기로에 세웠다.

내과 의사의 길로 들어서다

해방된 지 1년이 지난 1946년 9월, 일본의 교토부립의과대학에서 졸업장을 받아들이고 고향에 돌아온 서석조는 서울대학교 내과학교실에 들어갔다. 일반의로서 바로 개원하는 것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것 중 후자를 택한 것은 서석조가 그때까지 해 온 선택들과 비교하여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물론 그 스스로의 선택과 아버지인 서경선의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지만, 교토의 의과대학에 진학한 것을 볼 때 그는 당장의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보다는 학문적 성장을 목표로 학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련의 길을 선택한 것은 그에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의학의 여러 분과 중에서 내과를 선택하였는가'라는 질문은 서석조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의학부를 졸업한 그에게는 내과 이외에도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피부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

신경과 등 다른 임상 분과로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으며, 기초의학 분야인 생리학, 해부학, 생화학, 병리학, 미생물학 등을 포함하면 그 선택의 폭은 훨씬 넓었다. 이 가운데 그가 내과를 선택한 한 가지 이유는 내과가 1940년대 말 의사들에게 가장 넓은 학문적 범주를 지닌 분야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인사의 변동이 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서석조가 진학한 시점의 정확한 구성원의 목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1945년 10월 미군정청에 의해 임명된 의과대학 교수진을 기준으로 보면, 내과 학은 다른 분과들과 다르게 무려 세 개의 강좌, 즉 세 명의 교수들로 운영되었다.

아울러 서석조가 내과를 선택한 다른 이유는 그것이 당시 한국인의 건강 문제나 의료 현실의 개선에 가장 널리 기여할 수 있는 분야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1940년대 한국에서 만연한 질병들은 주로 내과 질환들이었다. 1946년과 1947년의 한국 주요 사인별 사망률 통계를 보면 폐렴과 위염, 장염으로 인한 사망 수가 노쇠로 인한 사망 수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해방 직후 의료인과 미군정청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 대상은 각종 전염병이었다.

1946년에는 콜레라가, 1947년에는 천연두가 대규모로 유행하였으며, 장티푸스와 발진티푸스의 소규모 유행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청이 한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각종 전염병에 포괄적으로 대응 가능한 내과학의 전문가가 가장 급박하게 필요한 인력들 중 하나였다. 서석조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

“좋은 결과로 환자를 웃게 하는 것이 훌륭한 의사죠”

병원 내 최고 신경외과 전문의…지역 내 의료 수준 한 단계 높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뇌혈관센터는 올해 1월 지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신규 10개소에 선정됐다. 그만큼 뛰어난 인원과 설비 등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자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내 최고 신경외과 전문의로 통하는 박석규 교수는 그 중심에 있다.

글_ 전진용 사진_ 박미희

박석규 교수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줄곧 그곳에서 보냈다. “어린 시절에는 특별히 의사의 꿈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의사의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 결국 의대의 꿈을 이뤘다.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던 박 교수의 의대 입학이 그의 어머니에게는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머니는 의사가 되는 게 그리 좋지만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의대생이 되면 힘들기도 하고 혹여 아들을 자주 볼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고 하시더라구요. 의사를 사위로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어요(웃음).”

자식을 둔 입장에서 박 교수는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박 교수의 바람과는 달리 그의 첫째 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스페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의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의학 공부와 인생 공부, 선택지는‘신경외과’

순천향대학교 의대에 입학한 박 교수는 의대 시절을 생각하며 “그저 열심히 살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짬을 내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인생 공부도 할 수 있었다.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 의대 사진관 동아리, 학생회 활동, 의료 봉사단 등 다양한 활동을 시간을 쪼개어서 했습니다. 그 시절의 공부와 그 시절의 다양한 활동이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소중한 추억이죠.” 박 교수가 의대 생활을 통해 선택한 것은 과는 ‘신경외과’였다. 신경계 질환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수술에도 관심이 높았다. “특히 수술하는 외과 분야가 제일 적성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은 신경계 질환을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가장 흥미로운 분야였습니다.”어려운 수술을 하는 외과 분야가 적성에 맞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경외과를 선택하게 됐지만, 성적도 좋아야 했고 무엇보다 힘든 과정이 필요했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수술이 매우 중요하기에 매일 공부하고 환자를 보면서 직접 경험하며 실력을 넓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학술대회와 다양한 영상 교육을 시청하며 스스로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듣고 배우고 연구하며 성장하다

박 교수는 선배들과 스승님들의 모습과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들의 조언을 들으려 했고 그들의 우수함

박
석
규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名醫



을 배우려 했다. 또한, 스스로의 공부와 연구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기에 박 교수에게는 여러 롤 모델이 있었다. “의대생 때는 지금 부천병원에 계신 황선철 선배님을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또 전공의 때는 김범태 교수님, 변박장 교수님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것부터 수술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까지 많은 노하우를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펠로우 시절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오창완 교수님, 권오기 교수님 등에게 혈관 수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전문분야인 뇌혈관에 관해서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수술기법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기 위해 매 순간을 공부하는 자세로 보내고 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 여러 신기술과 신설비들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에 더해 첨단 수술법과 의학 기기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중한 환자의 생명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지금도 여러 학회 활동과 함께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혈관질환 환자 사체의 혈관 변이 상태 등을 연구한 논문으로 논문상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과거 미국 연수를 통해 선진 의료시스템과 의료 기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기도 있다. “국내와는 또 다른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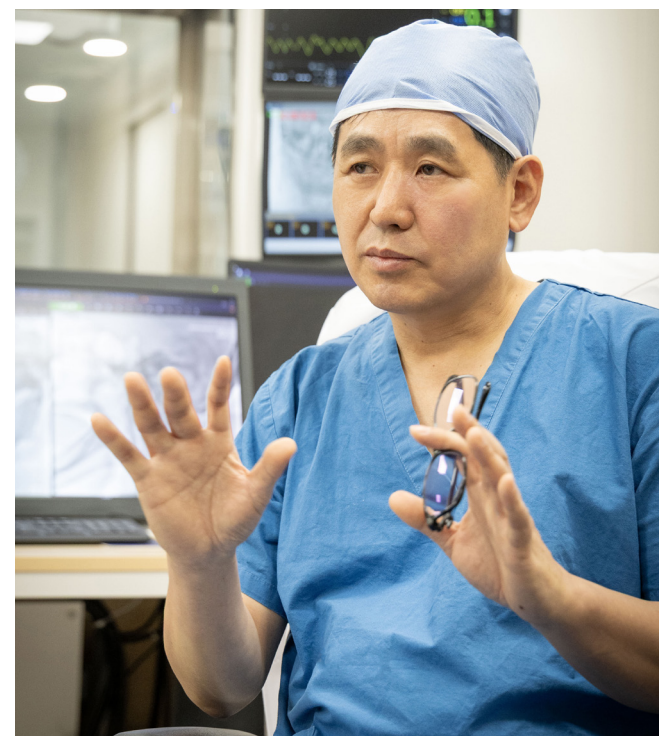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 여러 신기술과 신설비들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에 더해 첨단 수술법과 의학 기기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중한 환자의 생명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외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다른 수술기법과 환자를 케어하는 시스템 등의 새로운 것을 배웠고, 수술용 로봇을 개발하는 연구팀에 합류해 연구 활동에도 참여했었습니다.” 박 교수는 그때의 경험이 서울병원에 로봇수술이 도입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내 뇌혈관 질환의 수준을 높인다

박 교수를 비롯한 심뇌혈관 관련해 여러 교수와 의료진의 노력으로 서울병원 심뇌혈관센터는 서울 서북지역 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신규 지정됐다. “이 지정은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진과 설비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또한 더 큰 책임감을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기대에 부응해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박 교수와 여러 교수들이 함께 이끄는 심뇌혈관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최종치료를 24시간 제공하고 퇴원환자 등에 예방 관리교육 및 지역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필요 시 신속한 이동 등으로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



순천향대학병원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병원이며, 환자에 집중하고 환자 친화적인 병원으로 발전해 더 많은 환자들이 믿고 신뢰하고 편한 마음으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다. “다소 부족한 인력이지만 저희 모두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진을 통해 더 많은 환자에게 건강한 삶을 되찾아 주는 그것이야말로 저를 비롯한 우리병원 의료진들의 역할입니다.”

좋은 의료정책과 좋은 의사가 환자를 살린다

박 교수는 자신의 전문분야의 의학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의료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좋은 정책안에서 좋은 의사가 탄생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지금의 의료정책은 오랜 기간 시스템적으로 굳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옳은 방법이었던더라도 시대와 환경이 바뀔에 따라 의사와 환자, 전 의료시스템을 위해 보완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준다면 큰 혼란도

따르겠지만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저희 의료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생각이다.

“의료정책적인 문제로 의료진이 부족해 치료를 못 받거나 환자가 수술을 못 해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보험이나 필수 의료 등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는 만드는 것이 곧 좋은 의사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냐는 질문에 박 교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선물하는 의사죠.” 박 교수는 항상 스스로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려 한다고 전했다. 아무리 친절하게 환자를 잘 돌보는 의사더라도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없다면 궁극적으로는 아주 좋은 의사라고 보기 힘들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라도 항상 좋은 결과는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와 자신의 능력치 등을 모두 고려해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의사가 진정 좋은 의사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웃을 수 있고 또한, 가족들도 웃을 수 있거든요.” 박 교수는 “환자와 가족들이 고맙다고 할 때가 의사로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다”고 전했다.

“의사의 능력은 자기 자신이나 주변 의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평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사로서의 한결같은 목표이자 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순천향대학병원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병원”이라며 “보다 환자에 집중하고 환자 친화적인 병원으로 발전해 더 많은 환자들이 믿고 신뢰하고 편한 마음으로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환자 친화적 병원과 환자 친화적 의사의 만남이 곧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박석규 교수의 만남인 듯 느껴졌다. ■

여성암 맞춤 치료, 이것이 정석이다

여성암 치료 특성화 구현...경인 지역 여성암 치료 거점으로 각광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과 조기검진 등의 영향으로 여성암의 발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성암 치료 특성화를 통한 전문 치료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여성암센터는 완벽한 전문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경인 지역 여성암 치료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며 각광받고 있다.

글. 전진용 사진. 안용현

부천병원 여성암센터는 지난 2016년 7월 개소한 여성의학센터로부터 시작됐다. 본관 건물 2층에 개소한 여성의학센터는 여성들이 자주 겪는 질환을 치료하는 유방센터, 산부인과, 성형외과를 한 공간에 모아 여성 환자들의 진료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더해 부천병원은 여성암 환자들에게 기존 이상의 최적화된 치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여성암센터'로 새롭게 출범해 유방암·갑상선암·부인암 치료 특성화에 나섰다. 특히 여성암 발생률 증가에 따라 질환별 맞춤 치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최고 수준의 여성질환 전문의 ▲여성질환 진료과 협진 강화 및 환자 동선 최소화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시설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최신 첨단 장비의 지속적인 도입 등 인천 및 경기 서북부권 여성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부인암, '최소 침습 수술 확대 시행' 만족도 ↑

여성암센터의 산부인과는 흉터에 민감한 여성 질환 환자를 위해 최소 침습 수술을 지향하고 있다. 작은 구멍 하나만 뚫어 시행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물론, 0.8cm 절개 4~5개로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다빈치Xi 로봇수술은 상처가 작고 회복이 빨라 흉터에 민감한 여성 환자 만족도가 높다.

부인암 로봇수술의 전문가인 산부인과 정수호 교수가 부인암 최소 침습 수술을 이끌고 있다. 부인암 진단 후 치료까지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2.5cm 작은 절개 하나로 수술하는 최신형 로봇수술기 '다빈치SP'를 도입해,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로봇수술도 가능케 했다.

산부인과는 쾌적한 진료환경은 물론이고, 여성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한 시설 설계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여성 질환으로 인해 자존감을 상실하거나 흉터에 민감한 환자들을 위해서 최소 침습적인 수술과 보존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난소 종양은 작

은 구멍을 하나만 뚫어 시행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통해 치료한다. 이는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빨라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갑상선암, 치료 후 삶의 질까지 고려한 최적 치료

갑상선암은 완치율은 높지만 치료 후 삶의 질에 신경 써야 하는 암이기도 하다. 여성암센터는 갑상선암 치료를 담당하는 유방갑상선외과·이비인후과·내분비대사내과·핵의학과·영상의학과·병리과가 유기적인 협진을 통해 갑상선암 환자의 치료 후 삶까지 고려한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고 완치율을 높이고 있다.

수술적 치료 시 기존에는 아랫목 피부를 절개해 수술했지만, 최근에는 흉터 없이 치료하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도 가능해 환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시행해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위한 특수병실인 차폐병실을 3병상으로 운영하여 수술 후 신속하게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갑상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목소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음성 클리닉 운영)와의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방암, 편의·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족도 최상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7회 연속 1등급을 받는 등 유방암 치료의 강자로 통한다.

유방센터는 유방암에 대한 여성의 민감도를 고려해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 내부에 진료실 외에도 유방 검사 공간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바쁜 직장인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토요일에도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유방전절제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성형외과와 연계해 유방 재건술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여성 질환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방보존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흉터 및 수술 후 유방변형을 최소화하면서도 종양학적으로도 안전한 수술법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유방암과 관련된 진료과의 전문의들이 모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 진료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방사선종양학과에 도입된 ‘무표식 표면유도기법’은 방사선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였다. 이전에는 4~6주 방사선치료 기간에 몸에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해야 했으나, 이제 치료실 천장에 3차원 광학식 카메라 센서가 환자 위치 및 자세 변화에도 치료 부위 윤곽을 계획한 대로 표시해 주어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 



MINI INTERVIEW

“산부인과와 유방갑상선외과의 완벽한 협진”

— 정수호 산부인과 교수(부인암 전문)

정수호 교수는 부천병원 여성암센터의 경우 부인암과 유방암, 갑상선암 등을 완벽히 협진할 수 있는 센터 구성이 큰 장점이라 설명했다. “기존의 여성의학센터와 달리 산부인과와 유방갑상선외과가 함께 묶여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환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암센터 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성이 높은 타 과들과의 협진 또한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같은 층의 바로 옆에 성형외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암의 경우 미용적인 측면도 깊은 연관성이 있기에 센터와의 효율적인 협진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부천병원 여성암센터만의 또 다른 장점은 로봇수술이라 설명했다.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로봇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부인과의 경우 전국에서 꼽을 정도로 많은 로봇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센터는 여러 인원이 함께 해야 시너지가 납니다. 혼자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센터 전체를 잘 운영하는 건 힘들다”며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센터는 더욱 발전하고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후회 없는 완벽한 치료 위해 항상 노력”

— 허성모 유방갑상선외과(갑상선암 전문)

허성모 교수는 부천병원 여성암센터가 지역 내 거점병원의 주요 전문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희 센터가 지역 내에서 유방암, 갑상선암 등 여성암 치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허 교수는 환자가 만족해서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잘 치료된 케이스 보다는 안타까운 케이스의 환자들 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절박한 심정의 환자들에게 보다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 내 의료진뿐 아니라 모든 유관 진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원과 시설 등의 추가 보완을 통해 더욱 환자에게 만족도 높은 센터를 만들어 갈 것이라 전했다. “지금도 인원과 설비, 시설의 면에서 매우 잘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완벽할 수만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씩 더 채워가면서 보다 완벽한 치료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성암센터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 극복해야 치료 순응도 높아”

— 김지선 유방갑상선외과(유방암 전문)

여성암센터에서 유방암 치료가 전문인 김지선 교수는 여성암센터만의 전문적인 접근과 케어를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2만 명 이상의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암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암 치료뿐 아니라 여성의 특수한 건강 문제와 심리적,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보다 전문화와 특성화가 중요합니다”

김 교수는 여성 환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여성암센터의 경쟁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유방외과의 경우 검사 공간(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을 영상의학과와 공유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협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 내 위치도 남녀가 섞여 있는 일반 외래 구역과 구분되어 있어서 여성 환자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같은 여성으로서 환자의 입장에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환자는 표현을 못해도 심리적으로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진료 시 항상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환자와 공감하려 합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심리적 외로움을 극복해야 치료 순응도가 높아지고 치료 성적도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나눔, 사랑으로 디자인하다

교수와 학생,
환자 돕기 기부 프로젝트...
프리마켓 수익금 기부

사람을 중시하는 ‘인간사랑’의 순천향 정신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레 스며들고 있다. 크게는 국가와 인류사회를 위하고, 작게는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하는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취지로 ‘인간사랑’을 위한 여러 활동이 학교 차원뿐 아니라 개별과나 학생들 자체적으로도 기부와 봉사로 이어졌다.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디자인경영의 교수와 학생도 이런 정신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글_ 전진용 사진_ 이병희



순천향대학교의 글로벌디자인경영전공은 글로벌 마켓에서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를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앞서갈 수 있는 디자인 분야 최고의 전문가 양성이 목표다.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심고 깊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능력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류선주 글로벌디자인경영전공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인성을 갖춘 ‘인간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목표”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해 지역사회와 이웃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눔을 실천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주역들이 만들어가는‘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최근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글로벌디자인경영의 ‘환자 돕기 프리마켓 프로젝트’다. “얼마 전에도 기업의 의뢰를 받아 제품을 기획하고 이 제품의 시장 반응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바 있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전의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에 기획한 프로젝트는 바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환자들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저와 학생들이 함께 기획해 제품을 디자인하고 이를 상품화시켜 학교 내 프리마켓을 운영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수익금은 천안병원 환자들에게 기부해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만 학생들에게는 기부와 나눔의 정신을 심어주는 뜻깊은 프로젝트라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로벌디자인경영전공은 여러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복수전공이다. 이 여러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고 땀 흘린 만큼 기대 이상의 프로젝트가 되었다는 게 류 교수의 평가다.

류 교수는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도 이 프로젝트의 경험이 큰 힘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학생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발품 팔아 공장 섭외

미래의 글로벌 인재가 될 여러 학생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아이디어를 모았다. 디자인 관련 과이기에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썼지만, 이 외에 직접 제품 제작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면서 실무감과 경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획됐다. 김도현 글로벌디자인경영 학생은 “쉽지 않았던 만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다고 전했다.

“여러 학우들과 함께 디자인 컨셉과 이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신경 썼습니다. 또한, 제품의 상품화를 위해 여러 곳의 공장들을 직접 발품을 팔아 섭외하고



제품 생산공정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참여 학생들 모두 매우 힘들었지만 뿌듯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함께 한 학생들이 가장 큰 신경을 쓴 부분은 환자에게 어떤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고민하던 중 선택한 캐릭터가 바로 ‘고양이’다.

“고양이는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고양이를 캐릭터로 하여 티셔츠를 기획했고 이 티셔츠는 환자의 빠른 치유와 완쾌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류 교수는 “여러 힘든 과정을 자신의 힘으로 하나 둘 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 환자에 대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레 제품을 기획하는 과정을 보면서 교수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학교 내 최고 우수한 학생들이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군은 “교수님의 지도와 학우들의 열정으로 프로젝트를 잘 완성할 수 있었다”며 “이 프로젝트가 사회에 나가서도 한 단계 더 앞서갈 수 있는 인재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웃었다. ■

SCH
ISSUE
서울병원



‘리즘’ 도입으로 전립선비대증 맞춤치료 확대

순천향대서울병원 홀렙, 리즘, 로봇수술로 치료영역 넓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최근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리즘’시스템을 도입해 관련 환자에 대한 치료 영역을 넓혔다. 기존 로봇수술을 비롯해 홀렙 수술과 함께 전립선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관 중 하나로 정액을 구성하는 액체 성분의 일부를 만들어 분비한다.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하며, 요도를 터널 같이 감싸고 있는 호두 모양의 장기이다. 전립선 안쪽으로 사정관과 요도가 지나간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 비대해지면 요도를 좁게 만들어 배뇨를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로 진행하고, 약물치료로도 증상 개선이 안 되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홀렙, 리즘, 로봇수술까지 하게 된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은 요도를 통해 내시



이현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경을 넣어 비대해진 조직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이다. 하반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고 비교적 덜 침습적이고, 회복 기간이 짧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 하지만, 전립선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홀뮴레이저 수술인 홀렙은 기존의 경요도전립선절제술과 같이 조직을 조금씩 떼어내는 것이 아닌 전립선을 싸고 있는 피막을 남기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통째로 제거하는 수술이다. 출혈량과 재발 위험이 적으나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로봇수술은 사람 손으로는 어려웠던 정교한 조작이 가능해 보존이 필요한 부위를 남기고, 제거할 부분만 선택적으로 절제할 수 있어서 기능 보존에 도움이 된다.

리즘수술은 내시경 끝에 달린 주사바늘을 전립선 내부로 통과시킨 뒤 증기를 분사해 내에서 태우는 수술이다. 전립선 크기가 30~80그램인 환자에게 적합하다. 기본적 전립선 검사인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전립선초음파, 요속검사, 설문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이뤄진다. 일상생활은 퇴원 후 바로 가능하다. 수술 후 12주 정도 지나면 완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립선을 태우는 수술이기 때문에 전립선이 붓는 부작용이 있다. 환자마다 다르지만 시술 후 4주 정도까지는 배뇨 불편감이 증가할 수 있고, 6~8주까지는 배뇨 시 따갑고 찌르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수술 후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뚝뚝 떨어지는 정도의 배뇨 만 가능하다면 다시 진료를 봐야한다.

홀렙 수술과 비교하면 출혈 위험이 적고, 항응고제 등의 출혈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복용 중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 입원 기간이 짧은 장점도 있고, 역행성 사정이나 발기부전 같은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다. 3개월 이후에는 복용하던 전립선 약의 중단도 기대할 수 있다.

이현영 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진료를 하다 보면 ‘나이가 들었으니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전립선비대증을 방치하면 방광 기능까지 망가뜨려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SCH

SCH ISSUE

부천병원
SCH

카자흐스탄 환자, 한국서 신장암 로봇수술 성공 화제

부천병원 이상욱 교수, 맞춤형 고난도 부분절제술 성공



순천향대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좌측 세 번째)와 카자흐스탄 환자 오린베이스(좌측 네 번째)

‘전체 수술 영상 제공’ 등 국경 초월한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로 감동 선물

최근 신장암 수술을 받기 위해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찾은 카자흐스탄 환자 ‘오린베이스’(63세, 남성)씨가 순천향대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에게 ‘신장 부분 절제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 국내외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린베이스 씨는 정기 검진 중 우측 신장에 1.9cm 크기의 암을 발견하고 신장 전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에 절망했다. 2년 전에도 담낭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최소 절개와 최대 보존을 지향하는 치료 철학과 풍부한 신장암 수술 경험을 가진 이상욱 교수의 기사를 발견했다. 환자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행을 결정했다. 신장은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술 중 대량 출혈의 위험이 크다. 특히 부분 신장 절제술은 빠르고 정확한 수술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상욱 교수는 첨단 로봇수술 시스템을 활용해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 조직만 정확히 제거하고 나머지 신장의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환자는 이달 7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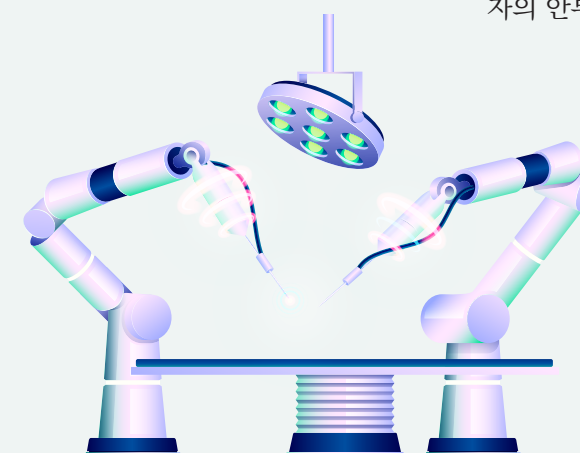
환자, “따뜻한 배려·자신감 있는 의료진 태도에 믿고 치료 맡겨”

환자 중심의 따뜻하고 투명한 의료 서비스도 눈에 띈다. 이 교수는 수술 전 전체 수술 영상과 주요 수술 장면 사진을 환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통역사와 함께 약 30분 이상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환자가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했다. 수술 후에도 본인의 수술 전체 영상을 제공하는 등 확고한 자신감을 보여 환자의 신뢰를 얻었다. 낯선 타국에서 어려운 수술을 받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배려였다.

오린베이스 씨는 “의료진은 통역사가 없을 때도 번역기를 활용해 수시로 소통하며 환자의 안부를 확인했다. 마치 가족에게 돌봄을 받는 기분이었다”라고 치료 경험에 대해 말했다.

이상욱 교수는 “로봇수술은 360도로 회전하는 로봇 팔을 이용해 종양 부위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제하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점이다. 앞으로도 국내외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올해 1월 기준 로봇수술 1,000례를 돌파하며, 중증 암 치료 93%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부천병원 비뇨의학과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최첨단 검사 장비와 로봇수술 시스템을 갖추고 환자 맞춤형 치료를 통해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CH
ISSUE

천안병원

혈액검사 자동화 시스템 확대 운영

국내 최초 UCM2 모듈 도입... 검사 정확도 향상·환자 대기시간 단축 기대



천안병원 새병원이 혈액검사 자동화 시스템(CCM, cobas connection module)을 확대·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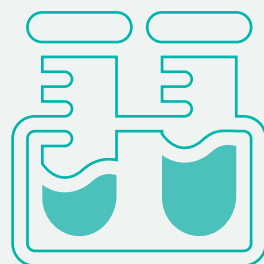
병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은 검체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도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듈(UCM2, Universal Connection Module)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혈액검사 자동화 시스템은 질병 진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혈액분석 및 검사 일체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채혈 이후부터 이동, 분류, 검사, 보관 및 폐기까지 자동화되는 통합 솔루션으로 사람이 일부 수행해 온 과정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대량의 검체도 빠르고 오류 없이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

시스템은 검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최신 장비들로 구성된 하나의 트랙으로 연결돼 있다.

검체 분류 및 장착에서부터 원심분리 등 전처리, 이송, 분석, 결과, 보관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트랙을 통해 이동시켜 분석한다. 검사 후에는 검체가 자동으로 트랙을 타고 냉장보관까지 이뤄져 검체 관리도 효율적이다.

이문수 병원장은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들의 대기시간도 줄어든 것”이라며, “응급실을 비롯해 당일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외래환자들의 진료 편의성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 S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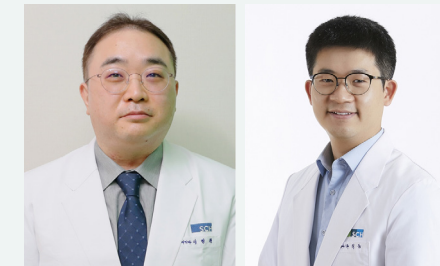


SCH
ISSUE

천안병원

전립선암 뼈 전이 진단법 새로운 기준 제시

국내 최초 베리톤CT 활용 연구... 진단 정확도 95% 입증



이정원 핵의학과 교수

유익동 핵의학과 교수



홍선표 핵의학과 교수

김시현 비뇨의학과 교수

천안병원이 최근 전립선암 환자의 뼈 전이 여부를 객관적인 수치로 진단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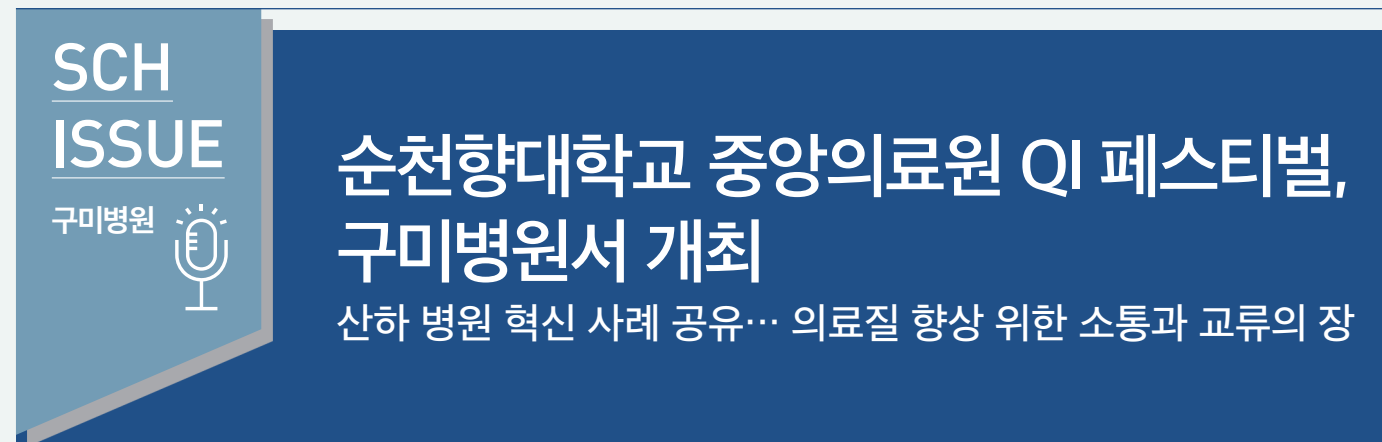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뼈로 전이되는 확률이 높아 뼈 스캔 영상검사가 필수적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뼈 스캔은 평면 영상 촬영만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병변의 해부학적인 세부 구조는 확인이 어려워 주로 의사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한 진단이 이루어졌다.

천안병원 핵의학과(이정원·유익동·홍선표), 비뇨의학과(김시현) 교수팀은 뼈 모든 면의 단층촬영이 가능한 핵의학 영상검사장비 베리톤CT를 활용했다. 사각지대 없이 입체적(3D) 영상을 정량적인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베리톤CT는 병변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변화 등을 분류하기 때문에 전이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할 수 있다. 실제 기준치는 전립선암에서 ▲뼈 전이가 있는 환자군의 94.8%를 발견했고 ▲전체 환자군에서도 95.5%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 뼈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새로운 진단법으로써의 유용성을 입증했다.

이정원 교수(핵의학과)는 “객관적 수치를 통해 오진을 줄이고,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베리톤CT를 활용해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 평가에 도움이 되는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전립선암 환자의 뼈 전이를 탐지하기 위한 full-ring 360° Cadmium-Zinc-Telluride 카메라를 이용한 전신 뼈 SPECT/CT의 정량적 매개변수 진단 능력’을 주제로 SCI급 국제학술지 디아그노스틱스(Diagnostics)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에 활용된 베리톤CT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순천향대천안병원이 도입했다. 기존 감마카메라에 비해 검사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10배 이상의 선명한 고화질로 3D 입체 영상을 제공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진단에 유용하다. ■ SCH



구미병원은 지난 3월 21일(금) 구미병원 향설대강당에서 '2025년 순천향대학교 중의의료원 QI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중의의료원 QI페스티벌은 의료원 산하 4개 병원의 우수한 QI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의료질 향상과 발전적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유성 중의의료원장을 비롯하여

중의의료원 및 산하 병원 보직자 및 유관부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경대 구미병원장 인사말 ▲서유성 중의의료원장 격려사 ▲초청 특강 ▲산하 병원별 중의의료원 QI 주제 발표 ▲산하 병원별 우수활동 발표 ▲행운권 추첨 ▲시상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QI 주제 및 병원별 우수활동 발표

서울병원

- 외래 처방 개선 활동을 통한 최상의 진료 제공 및 진료수익 증대
- AICC 고도화 작업

부천병원

- 부직포 포장 멸균기구의 유효기간 검증 및 연장을 통한 병원관리비용 절감
- 중증 응급환자 진료체계의 절차 확립을 통한 중증구역 활용의 최적화

천안병원

- 중환자실 수가 개발 및 산정 가능 품목 사용을 통한 수익 증대
- 낙상환자의 약물 분석을 통한 약물과 낙상 위험도와의 관계 연구

구미병원

- 대장 내시경 장정 결도 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
- 심혈관계 검사 과정 설명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천, 천안, 구미에서 각각 발표하여 총 8개 팀의 구연발표가 이뤄졌다.

서유성 의료원장, "병원 질적 수준 높이고 경영에도 중요한 역할"

중의의료원 QI 주제 및 병원별 우수활동 발표로는 [서울병원] ▲외래 처방 개선 활동을 통한 최상의 진료 제공 및 진료 수익 증대 ▲AICC 고도화 작업, [부천병원] ▲부직포 포장 멸균기구의 유효기간 검증 및 연장을 통한 병원관리비용 절감 ▲중증 응급환자 진료체계의 절차 확립을 통한 중증구역 활용의 최적화, [천안병원] ▲중환자실 수가 개발 및 산정 가능 품목 사용을 통한 수익 증대 ▲낙상환자의 약물 분석을 통한 약물과 낙상 위험도와의 관계 연구, [구미병원] ▲대장 내시경 장정 결도 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 ▲심혈관계 검사 과정 설명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등이다.

서유성 순천향대 중의의료원장은 "QI 활동은 병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병원경영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앞으로도 전 교직원들의 QI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더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경대 병원장은 "QI 활동에 힘써주시는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미병원에서 산하 병원의 QI 활동 사례를 공유하게 되어 더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환자 경험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CH



때같이 검어진 피부, 흑색가시세포증 의심해 봐야

비만에 의한 내분비질환이 원인,
체중감량으로 치료



성장기 청소년 거드랑이, 목덜미, 사타구니 등 검게 변하면 흑색가시세포증 의심해 봐야 ▼ 🔍



성장기 청소년의 나 목덜미, 사타구니 등 피부가 접하는 부위가 때를 밀지 않은 것처럼 검게 변하면 흑색가시세포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비만인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는 게 좋다.

흑색가시세포증, 청소년 비만과 대사질환의 경고등

흑색가시세포증은 주로 피부가 접하는 부위에 많이 발생한다. 초기에는 갈색 또는 회색의 색소가 접하는 피부 부위에 침착되다가 점점 피부가 두꺼워 지면서 피부 주름이 생기게 된다. 피부가 사마귀 모양으로 울퉁불퉁해지고 검버섯, 쥐뿔 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흑색가시세포증의 원인이다. 흑색가시세포증이 생겼다면 비만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대사증후군 같은 질병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의 경우 과거 비알콜성지방간으로 불렸던 대사이상관련지방간질환(MASLD)이 함께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하다.

청소년 흑색가시세포증, 치료 열쇠는 '체중감량'

흑색가시세포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체중감량이다. 체중감량을 통해 대사증후군이나 비만에 의한 합병증이 개선되면 증상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소실된다.

김도현 순천향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청소년기의 건강관리가 평생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부가 접하는 부위가 검게 변하는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 비만이나 지방간 등의 질환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어릴 때 찐 살은 키로 간다는 속설을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비만을 치료해야 한다”며 “약물치료 외에도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개선, 적절한 운동 등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CF



김도현 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진행성 난소암, 이종 면역항암제 병합 치료로 생존율 획기적 향상

부천병원 박준식 교수팀, 다기관연구 통해
새로운 표준 치료 제시

면역항암제 2종을 선행화학요법과 병합 투여해 면역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



부천병원 산부인과 박준식 교수가 연세대학교 부인암 연구 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진행성 난소암 환자에서 '이종 면역 항암제 병합 치료'의 생존율 향상 효과를 국내 다기관 임상 연구로 입증했다.

박준식·이정윤 교수 연구팀은 난소암의 재발을 막고 생존율을 높이고자 기존 항암화학요법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면역 항암제 2종을 병합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번 연구를 계획했다. 연구팀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절제 불가능한 3, 4기 난소암, 복막암, 또는 난관암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면역항암제인 '듀발루맙'과 '트레멜리무맙'을 기존 선행항암화학요법(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에 병합 투여했다. 약물 투여 방식에 따라 피험자를 두 군으로 나눠, 제1군은 트레멜리무맙을 3회에 걸쳐 저용량(75mg) 투여했고, 제2군은 고용량(300mg)을 첫 번째 주기에 1회만 투여했다. 이후 모든 환자는 중간 종양 감축 수술을 시행하고, 보조화학요법과 듀발루맙 유지 치료를 총 12회 시행했다.

그 결과, 피험 환자의 12개월 무병진행생존율은 65.9%로, 기존 화학요법 단독 치료군에서 보고된 무병진행생존율이 약 50%인 것에 대비하여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특히, 5명(11.1%)은 3회의 선행항암치료만으로 수술 당시 병리학적 완전관해를 보였다. 이 수치는 기존 선행화학요법 단독 치료에서 보고된 완전관해율이 5% 이하로 나타난 것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완전관해 환자는 모두 30개월 시점까지 재발 없이 생존해 면역항암 치료의 장점인 '지속 반응'도 그대로 나타났다. 또한 30개월 생존율은 87.7%, 무병진행생존율은 36.4%로 장기 생존 혜택이 일부 환자에서 지속되는 것은 면역항암제의 특성으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번 연구는 면역관문 단백질 'PD-L1' 발현률, 특정 돌연변이 서명, 세포외기질 유전자 서명이 높은 환자군에서 보다 좋은 예후를 보였다. 특히 면역관문 단백질 'PD-L1' 양성 환자들의 무병진행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환자 맞춤형 면역치료 전략에 새로운 예측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암연구학회(AACR) 발간 국제학술지 'Clinical Cancer Research(IF: 10.4)' 게재

이번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이정윤 교수 주도하에 국립암센터 등 5개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참여 기관이 다기관으로 수행한 2상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차의과대학교 연구진들이 연구 결과 분석에 참여했다.

박준식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치료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던 면역항암제를 최적의 시점과 조합으로 적용해 치료 반응률과 장기 생존율 향상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면역항암제 또는 PD-L1 억제제 단독 병합 요법을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초기 치료 단계에서부터 면역항암제 2종을 선행화학요법과 병합 투여함으로써 면역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차별화된 치료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종양 항원이 남아있는 시점에 면역체계를 자극해, T세포가 효과적인 항종양 반응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다. 향후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된다면, 새로운 표준 치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진행성 난소암에서 이종 면역관문억제제를 이용한 선행 항암화학요법: TRU-D 2상 비무작위 임상시험의 최종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암연구학회(AACR) 국제학술지 'Clinical Cancer Research(IF: 10.4)'에 최근 게재됐다. [▶▶▶](#)



박준식 순천향대 부천병원 산부인과 교수



뇌혈관질환 치료 혁신, '하이브리드 수술실'

중재시술과 외과수술 동시...
순천향대 천안 새병원에 도입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혈관 질환자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치료 위해 필수적



뇌혈관질환의 치료법은 크게 중재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로 나뉜다. 뇌동맥류의 경우 중재적 시술은 머리를 열지 않고, 혈관내 미세도관을 진입시켜 백금코일 또는 스텐트를 삽입해 치료한다. 수술 부위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나 감염 위험이 적고 입원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모든 뇌동맥류가 시술로 치료되진 않는다. 위치, 크기, 모양 등에 따라 수술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두피를 절개하여 클립으로 혈류를 차단하는 클립 결찰술은 뇌동맥류 주변의 정상 혈관을 직접 관찰하면서 치료하기에 시술시 혈관이 막힐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더욱 안전할 수 있다. 재발률이 낮고, 수술 후 항혈소판제 투약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 각광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하이브리드란 용어가 의미하듯 서로 다른 두가지 치료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수술실을 의미한다. 수술실 내에 양면 혈관조영기(biplane angiography)를 설치하여 뇌혈관, 심혈관, 말초혈관 질환 등에 대한 검사와 중재시술이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개두술을 비롯한 심장, 대동맥 및 정맥 등에 대한 다양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뇌질환 응급환자에도 최적화

기존에는 뇌동맥류나 뇌동정맥기형 파열로 인한 뇌출혈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할 경우 환자를 여러 번 옮겨야 했다. 먼저 혈관조영실로 환자를 이송해 조영술을 통해 병을 진단하고, 중재시술로 출혈 부위를 막은 후, 환자를 다시 수술실로 옮겨 출혈을 제거하거나 병변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는 중재시술과 수술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 별도의 이송 없이 한 수술실에서 두 가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치료에도 결과를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수술결과 미리 알고 조치

하이브리드 수술실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뇌혈관질환 환자

의 수술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술을 마치고 전에 혈관조영술을 통해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뇌동맥류 수술을 예로 들면 크기가 큰 뇌동맥류 수술 시 동맥류를 클립으로 결찰한 후 동맥류 일부가 남거나, 클립이 바짝 물려 모혈관이나 분지부가 좁아질 수 있는데 머리뼈를 봉합하기 전에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수술이 성공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잔여부가 남거나 혈관이 좁아진 경우 클립을 다시 조정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머리를 다시 열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환자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 도입·운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새병원에서는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도입·운영한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빠르게 증가하는 혈관질환자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병원은 국가지정 운영 중인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신경외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신경과, 마취과, 외과 등 여러 진료과의 통합 진료 시스템도 구축했다.



윤석만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



조절 가능한 치매 위험인자 14가지

청력, 운동, 사회활동...
치매 막는 3대 키워드

14가지 위험인자들을 완벽히 막을 수 있다면 전체 치매의 45%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



치매의 예방에 대한 2024년 란셋위원회 논문에서는 14가지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들을 발표하였다. 유년기의 낮은 교육수준, 청력 상실, 높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 우울증, 외상성 뇌 손상, 신체 활동 부족, 당뇨, 흡연, 고혈압, 비만, 지나친 음주, 사회적 고립, 대기 오염, 치료되지 않은 시력상실이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위험인자들을 완벽히 막을 수 있다면 전체 치매의 45% 정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오늘은 이 중에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청력 상실

청력이 10dB 저하될 때마다 약 16%의 치매 위험이 증가하고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 측두엽의 부피 손실이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청력 상실에 오래 노출될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며 특히 25년 이상 청력손실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치매의 위험이 가장 높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보청기 사용이 치매 발생의 위험에 대한 보호 효과를 보였고 보청기 사용이 인지 저하를 막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장기 관찰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운동이 치매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신체 활동은 인지 저하에 대한 상당한 보호 효과를 보였고, 특히 높은 수준의 운동이 가장 큰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신체 활동이 인지를 개선하거나 치매를 예방하는 잠재적인 메커니즘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비만,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수정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경 발생 증가, 뇌 혈류 증가, BDNF(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와 같은 신경영양인자의 증가를 통한 직접적인 신경학적 효과이다.

사회적 고립

여러 연구에서는 사회적 접촉이 적을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체계적인 문헌 검토와 메타 분석에서는 결혼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평생 독신자와 과부의 치매 위

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성인 13,984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 아이치현의 장기 코호트 연구에서는 평균 10년의 추적 관찰 기간 다섯 가지 사회적 접촉 척도를 계산했다. 결혼상태,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지지, 친구와의 접촉, 지역사회 그룹 참여, 유급 근로 업무 참여 등 다섯 가지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 가능성이 46% 낮았다. 이러한 다섯 가지 척도를 보면 우리가 노년기의 사회활동을 어떻게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

치매의 14가지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연구 결과들을 분석한 결과이며, 향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위험인자가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란셋위원회 논문에서는 2020년 논문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높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과 치료되지 않은 시력상실이 추가되었다. 이 외에도 수면 부족, 불균형한 식단, 감염, 정신 건강 문제 등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청각 손실이 있는 사람들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유해한 소음 노출을 줄이며, 우울증이 있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머리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흡연을 줄이며 중년기부터 고혈압·콜레스테롤·당뇨를 체크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과도한 알코올 소비를 줄이며, 노년기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시력상실에 대한 검진(특히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치료, 그리고 대기 오염 노출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SCF](#)



안병준 순천향대 구미병원 신경과 교수

천안병원 방사선 암치료기

현존하는 X선 선형가속기 중 최고 사양

움직이는 장기추적기능 탑재, 까다로운 부위 종양치료 효과적

환자 몸에 마킹 없이 치료가능, 여성암 치료 효과적

치료속도 4배까지 빠르고 소음적고, 내부 공간 넓어 환자 맞춤형 치료 제공

헬시온

트루빔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 엘살바도르 의과대학과 보건의료 협력 강화 현지 MOU체결 이어 공식 면담 개최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원장 서유성)은 4월 15일(화) 오전 9시, 의료원 내에서 엘살바도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과 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양 기관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3월 9일 엘살바도르 현지에서 열린 첫 면담에서는 교육 공간 활용, 임상 실습 기회 확대,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보건교육센터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계해 보건 인력 양성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이번 순천향의료원 방문에서는 ▲의과대학 학생 대상 연수 프로그램 확대 ▲의생명과학 분야 공동 연구 추진(순천향의생명연구원 SIMS 연계)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체계 구축 등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할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고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이 수행 중인 엘살바도르 국립보건교육센터 설립 및 보건교육 강화사업과의 연계하여 교육 현장의 효과를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앞으로도 중남미 지역의 보건의료 협력 중심 기관으로서, 현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인재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향대 교수 2명,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 선정

순천향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주관한 '2025년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에 의약공학과 이충성 교수와 화학과 이정훈 교수가 선정됐다고 4월 14일 밝혔다. 이충성 교수는 '마이크로니들-마이크로스피어 복합 패치제 연구 수행을 위한 전자동 경피흡수시스템 장비 구축' 과제로 선정됐다. 이 교수는 하이브리드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복용 편의성과 순응도를 향상하는 장기 간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정훈 교수는 '다기능성 플라즈모닉 나노물질 기반 분자 진단 플랫폼 개발을 위한 나노구조 분석 장비 구축' 과제로 선정됐다. 이 교수는 전계 방출 주사전자현미경을 활용해 플라즈모닉 나노입자의 미세구조와 표면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바이오와 에너지 응용 분야로 확장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순천향대-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 융합산업 발전 협약

순천향대는 4월 17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의료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의료 융합 신기술 공동개발 및 사업화 추진, 시험-인증 인프라 공동 활용, 스타트업 육성과 기업 유치,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글로벌 대학 사업 연계 협력 등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창완 순천향대 연구산학부총장은 "의료에 특화된 우리 대학과 의료-바이오-헬스 분야를 대표하는 KTL은 앞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협약을 넘어, 눈에 보이는 성공 사례를 반드시 함께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K-헬스케어 수출 선봉" ...순천향대 GTEP, 16년 연속 선정



순천향대(총장 송병국)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에 선정됐다고 4월 11일 밝혔다. 2009년부터 GTEP사업 16년 연속 선정된 순천향대는 헬스케어 의료 분야의 서비스 수출 선도대학으로서 2026년까지 국내외 무역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GTEP 사업단은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CMEF)'를 시작으로, 7월 베트남 하노이의 'K Med Expo Vietnam & Hanoi Int'l Meditech', 미국 시카고 'ADLM 2025(임상실험 전시회)' 등에 차례로 참가할 예정이다. 9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Medical Fair Thailand 2025'에도 참가하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실무 경험을 강화한다. 순천향대 GTEP 사업단 4명의 학생은 CMEF에서 협력기업 기술과 제품을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시장 동향을 파악하며 실전 마케팅을 수행했다.

'2025벚꽃축제'개최, 지역과 함께하는 봄의 향연

순천향대는 4월 7~8일 이틀간 교내 오월의광장 일대에서 재학생 및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2025 벚꽃축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는 순천향대의 대표적인 지역 연계 문화행사로, 만개한 벚꽃 아래에서 캠퍼스의 봄 정취를 만끽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 기간 학생 동아리 공연, 벚꽃 포토존 운영, 지역 먹거리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송병국 총장은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순천향만의 봄 축제를 통해 모두가 따뜻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형 교수, 대한항균요법학회 회장 선출

김태형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4월 3일부터 4일까지 호텔인터볼고 대구에서 열린 학술대회 중 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1958년 설립했다. 현재는 감염병 치료의 난제인 항균제 내성균의 출현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연구와 전략을 위해서 노력하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학회이다. 김태형 교수는 "감염병 전문가가 직종의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신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잘 새겨듣고 젊은 회원님들도 진료, 연구, 교육 현장에서 자부심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잘 돕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LIG, 순천향대서울병원에 기부금 전달 의료취약계층 지원 5년째... 사회공헌으로 ESG 경영 실천

LIG가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월 26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 기부금 6천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최용준 LIG 대표이사사와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LIG는 5년째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1년부터 매년 전달한 기부금 총액은 올해로 2억 6천만 원이다. 최용준 LIG 대표이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은 "기부해주신 후원금을 통해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희 교수, 암예방의 날 유공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김태형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4월 3일부터 4일까지 호텔인터볼고 대구에서 열린 학술대회 중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1958년 설립했다. 현재는 감염병 치료의 난제인 항균제 내성균의 출현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연구와 전략을 위해서 노력하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학회이다. 김태형 교수는 "감염병 전문가가 직종의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신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잘 새겨듣고 젊은 회원님들도 진료, 연구, 교육 현장에서 자부심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잘 돕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ROTC중앙회 건강검진 업무협약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24만 ROTC 동문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은 11일 신관 1회 의실에서 대한민국ROTC중앙회(회장 노형식)와 건강검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한편, ROTC 동문의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신체 및 정신, 굳건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정재 병원장은 "오늘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ROTC 동문들께서 건강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병원에서도 건강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수동 상근부회장은 "서울의 중심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과 협약을 하게 되어 신뢰가 가고 든든하다"며 "앞으로 순천향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동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탁 감염내과교수 질병관리청 항생제 사용지침서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 책임연구

정종탁 감염내과 교수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발한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에 책임연구자로 참여했다. 지침은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생제 적정사용 수행 인력과 진단 인프라가 부족한 요양병원의 상황을 고려해 항생제 처방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상경로 형태로 개발해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정종탁 교수는 "대한항균요법학회를 대표해 지침서 발간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단순하고 쉬운 형태의 지침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50년 출발선에 선 순천향대서울병원 개원 51주년 '희망'으로 새 출발 '인간사랑' 정신 되새겨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4월 2일 개원 51주년을 맞았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1974년 성실, 봉사, 연구의 원훈 아래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술을 펼쳐가는 고향마을을 만들어 가겠다는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순천향(順天鄕) 정신으로 항설 서석조 박사가 개원했다. 우리나라 의료법인 1호다. 생일을 맞은 순천향대서울병원은 동은대강당에서 개원 51주년 기념식을 갖고 인간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희망의 새 출발을 다짐했다. 개원 51주년을 맞은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최근 카티 치료 시작을 비롯해 지역 심뇌혈관센터 지정, 암심속 지원센터 및 우리아이안심병원 운영, 전립선비대증 수술센터 개소 등으로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한편, 순천향은 1974년 개원한 순천향병원(현재의 서울병원)을 기반으로 1978년에는 순천향의과대학을 열었고, 1979년에는 순천향대구미병원, 1982년 순천향대전안병원을 잇달아 개원했다. 2001년에는 순천향대부천병원을 개원해 각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비인후과 이승원 교수, 제20대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장 취임

이승원 교수가 최근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 2년간이다. 이 신임 회장은 음성 수술 및 갑상선 수술 분야의 전문가로, 미국 기관식도학회 및 미국 후두음성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여 년간 난치성 음성 질환인 성대반흔, 성대 재건 등에 대한 치료와 함께, 국소마취하 성대 레이저 수술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수술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전문성과 헌신은 후두 및 음성 질환 치료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장 취임을 통해 학문적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표창’ 수상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센터장최수정 교수)가 최근 ‘의료기기 안전정보 1차 운영위원회’에서 최우수센터로 인정받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본 센터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수집과 분석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의료기기 안전성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 센터는 2013년부터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한 부작용 사례 보고를 활성화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해 왔다. 2022년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관련 교육’과 2023년 ‘국제조화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관련 코드 및 교육 자료 개발’에도 앞장섰으며, 2021년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의료기기 규제 교육 센터’로 지정돼 매년 ‘SCH APEC 의료기기 우수센터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산부인과 김태희 교수,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김태희 산부인과 교수가 최근 ‘제79차 경기도 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김 교수가 여성 건강 증진과 공공 보건 정책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김 교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고령 임신부 건강 관리 정책, 임신 여군의 근무 환경 개선 지침서 개발 등 보건·사회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실행에 앞장서 왔으며, ‘중·장년 여성의 항노화 연구교류회’를 이끌며 관련 정책 및 연구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 향상에 이바지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경외과 임수빈 교수, 몽골 보건개발원으로부터 ‘명예 휘장’ 수여

임수빈 교수(경기국제의료협회 기획실행위원장)가 최근 열린 ‘제17회 경기도 글로벌 병원경영 아카데미 환영식’에서 몽골 보건개발원으로부터 ‘명예 휘장’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임수빈 교수가 몽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임 교수는 지난해 몽골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총 3회의 메디컬 컨퍼런스를 개최해 선진 의료 기술을 전수했으며, 12월에는 본원에서 연수받은 몽골 의료진 2명과 함께 몽골 최초로 ‘후종인대골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전방경추체절제 및 재건술’을 집도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수술은 척수를 감압하는 고난도 수술로, 임 교수는 열악한 현지 수술 환경 속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수술을 진행해 국내외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입원환자 안전위한 신속대응시스템 강화



천안병원이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한 신속대응시스템을 강화했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입원환자 가운데 호흡곤란, 쇼크, 심정지, 의식저하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즉각 출동해 치료한다. 병원 내 119로 불리는 신속대응팀은 2019년 신설돼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냈다. 천안병원은 신속대응팀 운영시간을 기존 평일(16시간)에서 365일(24시간) 연중무휴로 확대했다. 신속대응팀 의료진도 기존 9명에서 16명으로 크게 보강했다. 의료진은 ▲호흡기내과(4명) ▲신장내과(1명) ▲감염내과(1명) ▲심장내과(1명) 등 7명의 교수진과 ▲전담간호사(9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기경보시스템(MEWs)과 인공지능(AI) 심정지 예측 프로그램 딥카스(Deep-CARS)를 고도화 했다. 딥카스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과 연동해 환자의 주요 활력징후와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다.

새병원에서 첫 아기 탄생 ‘쌍둥이 남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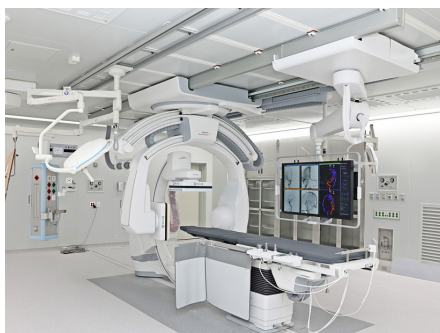
천안병원 새병원에서 5월 3일 오전 첫 쌍둥이 남매가 탄생했다. 엄마 김지희씨와 아빠 조용성씨 사이에서 오전 9시 8분과 9분에 태어난 금찌이(태명, 첫째 딸)와 금용이(둘째 아들) 남매다. 태몽에 나온 금과 부모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태명을 금찌이(여)와 금용이(남)로 지은 쌍둥이 남매는 건강하고 우렁찬 울음소리로 새병원의 시작을 알렸다. 김지희씨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의료진을 보면서 우리 아기가 새병원 마스크가 된 기분이 들어 좋다”면서, “임신 후기에 많이 힘들었지만, 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믿음을 준 김운숙 교수님과 병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운숙 교수는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본원을 믿고 이겨내 준 산모와 가족에게 감사하다”며,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고, 고위험 산모들의 분만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더 많은 가정에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봇수술치료 환자 만족도 ‘매우 높아’



충남지역 최초로 로봇수술기 ‘다빈치Xi’를 도입한 천안병원이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천안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최근 1년간 로봇수술 300례를 돌파했다. 환자들에게 치료와 회복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빠른 수술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또 최근 의료공백 사태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와 전담 코디네이터, 다학제 진료 등을 갖춘 체계적이고 안정화된 시스템도 한몫했다. 로봇수술은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부인암, 자궁근종, 난소종양, 비뇨기암, 두경부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 암뿐 아닌 다양한 질환에서 폭넓게 시행됐다. 천안병원이 도입한 다빈치 로봇수술기는 정밀하고,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을 제공한다. 유연한 4개의 로봇 팔과 15배 확대되는 3D 고화질 영상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들이 집약돼 있어 환자들에게 최상의 수술 결과를 제공한다.

새병원에 ‘최첨단 하이브리드 수술실’ 운영



천안병원 새병원이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도입·운영한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내·외과적 시술과 수술이 한 공간에서 시행된다. 뇌혈관, 심혈관, 말초혈관 질환 검사와 중재적 시술을 비롯해 개두술·개심술, 대동맥 및 정맥 이상에 대한 외과적 수술도 시행 가능하다. 기존에는 혈관질환 치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기형 등이 발견되면 시술 또는 수술로 전환하기 위해 환자를 이동시켜야 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한 장소에서 진단과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병원은 하이브리드 수술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신경외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신경과, 마취과, 외과 등 여러 진료과의 통합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 신경숙 교수 신임 대표 취임식 개최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는 3월 11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향설대강당에서 제4·5대 대표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취임식은 민경대 병원장을 비롯하여 햇살아이지원센터 이사 및 후



원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 제5대 대표로 가정의학과 신경숙 교수가 취임했다. 신경숙 신임 대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헌신해 주신 4대 황성일 대표님과 역대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찾아 지원하고 방임·학대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민경대 병원장은 “신경숙 대표님은 남수단 톤즈에서 고(故) 이태석 신부와 함께 진료 봉사를 하셨으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라며, “이제 햇살아이지원센터 대표로서 아동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햇살아이지원센터는 4년 연속 경북도청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 우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구미병원, 개원 46주년 기념식 개최



구미병원은 2일 본원 향설대강당에서 개원 4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경대 병원장과 서유성 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보직자들과 1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식선포 및 국민의례 ▲장기근속 교직원 시상 ▲모범직원, 베스트직원 표창 ▲민경대 병원장 기념사 ▲서유성 중앙의료원장 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임한혁 영상의학과 교수 외 29명의 교직원이 근속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이어 환자경험 향상 및 고객감동 실천에 기여한 정소영 간호사 외 4명이 모범직원 & 베스트직원으로 선정돼 이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민경대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 개원 46주년을 맞아, 병원이 외적으로 성장한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새롭게 다져가야 할 때”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며, 환자와 직원 모두가 더 행복한 병원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구미병원 의료봉사단, 구미 무을면 주민 대상 의료봉사 실시

구미병원은 구미제일 MJF 라이온스클럽과 함께 3월 22일 경북 구미시 무을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및 음식봉사를 함께 펼쳤다.



이번 합동 봉사는 의료봉사단장 김성호 신경외과 교수, 황성조 신장내과 교수를 포함한 순천향대 구미병원 의료봉사단과 구미제일 MJF 라이온스 클럽(회장 김영모) 회원 등 총 8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마을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의료봉사는 진료와 ▲복부 초음파 ▲골밀도 검사 ▲혈압검사 ▲X-ray ▲심전도 등 각종 검사와 약 처방도 제공하며 마을에서 쉽게 받기 어려웠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의료봉사단장 김성호 신경외과 교수는 “40년 넘게 한결같이 인간사랑 순천향 정신을 몸소 실천해 준 의료봉사단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미병원 교직원, 경북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



구미병원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직원들이 함께 모은 성금 1400만 원을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에게 전달했다. 구미시청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서는 구미시장,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산불 피해 지원 성금은 병원 내 동호회를 비롯해 의료진, 행정, 간호 등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이며, 조직적인 캠페인이 아닌 자연스럽게 퍼진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성금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정성껏 모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했다. 민경대 병원장은 “서로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하나로 모여 자발적인 모금 활동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CH NETWORK

순천향 인간사랑 50년,
의료를 넘어 사람을 꽃 피우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순천향대학교
www.sch.ac.kr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